제7장

한국 경학사상 연구

김유곤

1. 머리말

본 보고서는 2018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 중에서 경학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글이다. 논문 선정 작업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와 등재 후보 학술지를 대상으로 삼았다.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출간된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와 등재 후보 학술지를 살펴본 결과 경학에 관한 주요 논문은 총 35편이 있었다. 경학에 관한 논문으로 선정한 기준은 유교 경전인 십삼경(十三經)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 학자들의 주석을 중심으로 분석한 글로 한정하였다. 35편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강민구	지봉(芝峯) 이수광(李睟光)의 상서학(尙書學)에 대한 연구	동 방 한 문 학 75	동방한문학회
2	강보승	하곡(霞谷) 정제두(鄭齊斗)의 『대학』 해석과 격물치지론	양명학 51	한국양명학회
3	길태은	간재(艮齋)의 경학사상 연구(－「대학기의(大學記疑)」의 주석(註釋) 체제(體制)를 중심으로－)	대 동 한 문 학 56	대동한문학회
4	김동민	서파(西陂) 유희(柳僖)의 『춘추』 사전(四傳)에 대한 비판적 관점(－『춘추사전산오설(春秋四傳刪誤說)』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94	동양철학연구회
5	김동민	이진상(李震相) 『춘추집전(春秋集傳)』의 성리학적 『춘추』 이해	대동문화연구 10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6	김병애	하빈(河濱) 신후담(愼後聃)의 『주역』 해석(－『주역상사신편(周易象辭新編)』의 효변(爻變)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 연구 73	한국유교학회
7	김수경	이황(李滉) 『주역석의(周易釋義)』의 번역학적 고찰 시론(－조선시대 유가경전주석 번역해석학의 연구방법론 모델 탐색을 겸하여－)	태동고전연구 40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8	김희영	박세당(朴世堂)의 『논어사변록(論語思辨錄)』을 통해 본 독자적 경전 주해(－『논어집주(論語集註)』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4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9	서근식	북학파의 『주역』 해석 방법론 연구(Ⅰ)(－초정(楚亭) 박제가(朴齊家)와 근기남인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36	(사)율곡연구원
10	양원석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자학(字學)에 대한 연구(－다산 자학 연구의 범위 및 경학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54	대동한문학회
11	엄연석	이언적(李彦迪)의 『중용구경연의(中庸九經衍義)』와 『중용구경연의별집(中庸九經衍義別集)』의 경학사상사적 특색	대동철학 83	대동철학회
12	엄연석	정약용(丁若鏞)의 소옹(邵雍)과 주희(朱熹) 『주역』 수리설 비판에 대한 재조명(－『역학서언(易學緖言)』의 「주자본의발미(朱子本義發微)」와 「소자선천론(邵子先天論)」을 중심으로－)	다산학 33	재단법인 다산학술문화재단
13	유민정	위백규(魏伯珪)의 수사학적 경전해석(－『맹자차의(孟子箚義)』를 중심으로－)	퇴계학보 143	퇴계학연구원
14	유정연	정제두(鄭齊斗)와 중강등수(中江藤樹)의 『대학』 해석 비교	양명학 50	한국양명학회
15	이동욱	양간(楊簡) 『서경』 주석의 특징 연구(－「가기이(家記二) : 논서(論書)」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44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6	이영호	경학사적 관점에서 살펴본 조선경학에서의 '고(古)'의 지향(－조선 논어학의 중요개념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55	대동한문학회
17	이영호	『서경』「홍범(洪範)」 해석의 두 시각, 점복(占卜)과 경세(經世)(－이휘일(李徽逸)·이현일(李玄逸)의 「홍범연의(洪範衍義)」 분석을 중심으로－)	퇴계학보 143	퇴계학연구원
18	이원석	이언적(李彦迪)의 『대학』 이해(－『대학』 편장 개정과 격물치지 개념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83	대동철학회
19	이은호	퇴계(退溪) 직전(直傳) 제자의 『상서』 읽기	태동고전연구 40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	임옥균	야마가 소코[산록소행(山鹿素行)]의 『논어』 해석(1)(－주자(朱子)의 해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93	동양철학연구회
21	임옥균	야마가 소코[산록소행(山鹿素行)]의 『맹자』 해석(1)(－주자(朱子)의 해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96	동양철학연구회
22	임재규	16－17세기 조선 경학에 있어서 주자(朱子) 중화설(中和說)의 수용과 비판(－조익(趙翼)과 박세당(朴世堂)의 중화설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83	대동철학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23	임재규	정약용(丁若鏞)과 주진(朱震)의 『주역』 해석 방법론 비교	공자학 36	한국공자학회
24	임홍태	왕수인(王守仁)과 손응오(孫應鼇)의 사서관(四書觀) 비교 연구(-『전습록(傳習錄)』과 『사서근어(四書近語)』를 중심으로-)	양명학 49	한국양명학회
25	정일남 · 이향	양촌(陽村) 권근(權近)의 문학과 『시경』	동 방 한 문 학 74	동방한문학회
26	조정은	포저(浦渚) 조익(趙翼)의 경학사상에 나타난 수양관(-『논어천설(論語淺說)』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40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7	진성수	왕부지(王夫之) 사서학(四書學)의 특징과 청대 실학으로의 전환	동서철학연구 90	한국동서철학회
28	천병돈 노병렬	신작(申綽) 『역차고(易次故)』의 공부론 연구(-『역전(易傳)』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양명학 51	한국양명학회
29	최석기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의 『대학』 해석 연구	남 명 학 연 구 57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30	최석기	조선시대 『중용』 해석의 양상과 특징(-도설(圖說)을 중심으로-),	남 명 학 연 구 60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31	한재훈	『대학사변록(大學思辨錄)』에 나타난 박세당(朴世堂)의 격물치지 해석과 주희(朱熹) 비판의 성격	철학탐구 51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32	한정길	지천(遲川) 최명길(崔鳴吉)의 『대학』관(-주희(朱熹)의 『대학』 해석에 대한 반성의 한 양상-)	대동철학 83	대동철학회
33	함영대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의 학술정신과 『맹자사변록(孟子思辨錄)』	한국한문학연구 72	한국한문학회
34	황병기	경학사적 관점에서 본 포저(浦渚) 조익(趙翼)의 중용관	대동철학 83	대동철학회
35	황인석	「대학」과 「학기(學記)」의 연계성 연구	공자학 36	한국공자학회

보고서 구성은 먼저 전체 35편 논문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분류 방식에 따라 나누어 보았다. 첫째 인물별 분류, 둘째 주제별 분류이다. 인물별 분류에서는 한국 유학자, 중국 유학자, 일본 유학자를 다룬 논문으로 구별하였다. 주제별 분류에서는 연구 대상 경전별로 구별하였다. 그리고 각 경전별로 의미 있는 논문 8편에 대해 분

석을 하고, 2018년 경학 관련 연구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한 짧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2. 인물별 분류

총 35편의 경학 논문 중에서 경전 주석서를 중심으로 학자의 경학 사상을 다룬 논문은 32편이다. 그 중에서 한국 유학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25편, 중국 유학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3편, 일본 유학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2편, 한국 유학자와 중국 유학자를 비교한 논문이 1편, 한국 유학자와 일본 유학자를 비교한 논문이 1편이다.

1) 한국 유학자

한국 유학자의 경학 사상을 다룬 25편의 논문 중 가장 많이 다룬 인물은 박세당(朴世堂)(서계(西溪), 1629~1703)으로 3편의 논문이 있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희영	박세당(朴世堂)의 『논어사변록(論語思辨錄)』을 통해 본 독자적 경전 주해(–『논어집주(論語集註)』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4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	한재훈	『대학사변록(大學思辨錄)』에 나타난 박세당(朴世堂)의 격물치지 해석과 주희(朱熹) 비판의 성격	철학탐구 51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3	함영대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의 학술정신과 『맹자사변록(孟子思辨錄)』	한국한문학연구 72	한국한문학회

2편의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은 이언적(李彦迪)(회재(晦齋)(1491~1553), 조익(趙翼)(포저(浦渚), 1579~1655), 정약용(丁若鏞)(다산

(茶山), 1762~1836)이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엄연석	이언적(李彦迪)의 『중용구경연의(中庸九經衍義)』와 『중용구경연의별집(中庸九經衍義別集)』의 경학사상사적 특색	대동철학 83	대동철학회
2	이원석	이언적(李彦迪)의 『대학』 이해(-『대학』 편장 개정과 격물치지 개념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83	대동철학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조정은	포저(浦渚) 조익(趙翼)의 경학사상에 나타난 수양관(-『논어천설(論語淺說)』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40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	황병기	경학사적 관점에서 본 포저(浦渚) 조익(趙翼)의 중용관	대동철학 83	대동철학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양원석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자학(字學)에 대한 연구(-다산 자학 연구의 범위 및 경학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54	대동한문학회
2	엄연석	정약용(丁若鏞)의 소옹(邵雍)과 주희(朱熹) 『주역』 수리설 비판에 대한 재조명(-『역학서언(易學緖言)』의 「주자본의발미(朱子本義發微)」와 「소자선천론(邵子先天論)」을 중심으로-)	다산학 33	재단법인다산학술문화재단

각 1편의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은 총 13명으로 시대 순으로 나열해 보면 권근(權近)(양촌(陽村), 1352~1409), 이황(李滉)(퇴계(退溪), 1501~1570), 장현광(張顯光)(여헌(旅軒), 1554~1637), 이수광(李睟光)(지봉(芝峯), 1563~1628), 최명길(崔鳴吉)(지천(遲川), 1586~1647), 정제두(鄭齊斗)(하곡(霞谷), 1649~1736), 신후담(愼後聃)(하빈(河濱), 1702~1761), 위백규(魏伯珪)(존재(存齋), 1727~1798), 박제가(朴齊家)(초정(楚亭), 1750~1805), 신작(申綽)(석천(石泉), 1760~1828), 유희(柳僖)(서

파(西陂), 1773~1837), 이진상(李震相)(한주(寒洲), 1818~1886), 전우(田愚)(간재(艮齋), 1841~1922)이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정일남 이향	양촌(陽村) 권근(權近)의 문학과 『시경』	동방한문학 74	동방한문학회
2	김수경	이황(李滉) 『주역석의(周易釋義)』의 번역학적 고찰 시론(－조선시대 유가경전주석 번역해석학의 연구방법론 모델 탐색을 겸하여－)	태동고전연구 40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3	최석기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의 『대학』 해석 연구	남명학연구 57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4	강민구	지봉(芝峯) 이수광(李睟光)의 상서학(尙書學)에 대한 연구	동방한문학 75	동방한문학회
5	한정길	지천(遲川) 최명길(崔鳴吉)의 『대학』관(－주희(朱熹)의 『대학』 해석에 대한 반성의 한 양상－)	대동철학 83	대동철학회
6	강보승	하곡(霞谷) 정제두(鄭齊斗)의 『대학』 해석과 격물치지론	양명학 51	한국양명학회
7	김병애	하빈(河濱) 신후담(愼後聃)의 『주역』 해석(－『주역상사신편(周易象辭新編)』의 효변(爻變)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73	한국유교학회
8	유민정	위백규(魏伯珪)의 수사학적 경전해석(－『맹자차의(孟子箚義)』를 중심으로－)	퇴계학보 143	퇴계학연구원
9	서근식	북학파의 『주역』 해석 방법론 연구(Ⅰ)(－초정(楚亭) 박제가(朴齊家)와 근기남인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36	(사)율곡연구원
10	천병돈 노병렬	신작(申綽) 『역차고(易次故)』의 공부론 연구(－『역전(易傳)』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양명학 51	한국양명학회
11	김동민	서파(西陂) 유희(柳僖)의 『춘추』 사전(四傳)에 대한 비판적 관점(－『춘추사전산오설(春秋四傳刪誤說)』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94	동양철학연구회
12	김동민	이진상(李震相) 『춘추집전(春秋集傳)』의 성리학적 『춘추』 이해	대동문화연구 103	성균관대학교 동문화연구원
13	길태은	간재(艮齋)의 경학사상 연구(－「대학기의(大學記疑)」의 주석(註釋) 체제(體制)를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56	대동한문학회

하나의 논문에서 2명의 학자를 다루고 있는 논문은 3편으로 조목(趙穆)(월천(月川), 1524~1606)과 이덕홍(李德弘)(간재(艮齋), 1541~1596), 조익(趙翼)(포저(浦渚) 1579~1655)과 박세당(朴世堂)(서계(西溪), 1629~1703), 이휘일(李徽逸)(존재(存齋), 1619~1672)과 이현일(李玄逸)(갈암(葛庵), 1627~1704)을 다루고 있는 논문이 각각 1편씩 있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은호	퇴계(退溪) 직전(直傳) 제자의 『상서』 읽기	태동고전연구 40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	임재규	16–17세기 조선 경학에 있어서 주자(朱子) 중화설(中和說)의 수용과 비판(–조익(趙翼)과 박세당(朴世堂)의 중화설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83	대동철학회
3	이영호	『서경』「홍범(洪範)」 해석의 두 시각, 점복(占卜)과 경세(經世)(–이휘일(李徽逸)·이현일(李玄逸)의 「홍범연의(洪範衍義)」 분석을 중심으로–)	퇴계학보 143	퇴계학연구원

2) 중국 유학자

중국 유학자의 경학 사상을 다룬 논문은 3편으로 양간(楊簡, 1141~1226)과 왕부지(王夫之, 1619~1692)를 다룬 논문이 각각 1편씩 있고, 왕수인(王守仁, 1472~1528(?))과 손응오(孫應鼇, 1527~1584)를 비교한 논문이 1편 있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동욱	양간(楊簡) 『서경』 주석의 특징 연구(–「가기이(家記二) : 논서(論書)」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44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	진성수	왕부지(王夫之) 사서학(四書學)의 특징과 청대 실학으로의 전환	동서철학연구 90	한국동서철학회
3	임홍태	왕수인(王守仁)과 손응오(孫應鼇)의 사서관(四書觀) 비교 연구(–『전습록(傳習錄)』과 『사서근어(四書近語)』를 중심으로–)	양명학 49	한국양명학회

3) 일본 유학자

일본 유학자의 경학 사상을 다룬 논문은 야마가 소코(산록소행(山鹿素行), 1622~1685)를 다룬 2편이 있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임옥균	야마가 소코[산록소행(山鹿素行)]의 『논어』 해석 (1) (-주자(朱子)의 해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93	동양철학연구회
2	임옥균	야마가 소코[산록소행(山鹿素行)]의 『맹자』 해석 (1) (-주자(朱子)의 해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96	동양철학연구회

3) 한국, 중국, 일본 유학자 비교

한국, 중국, 일본 유학자를 비교한 논문은 2편으로 한국 유학자인 정약용(丁若鏞)(다산(茶山), 1762~1836)과 중국 유학자인 주진(朱震, 1072~1138)을 비교한 논문이 1편 있고, 한국 유학자인 정제두(鄭齊斗)(하곡(霞谷), 1649~1736)와 일본 유학자인 나카에 도주(중강등수(中江藤樹), 1608~1648)를 비교한 논문이 1편 있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임재규	정약용(丁若鏞)과 주진(朱震)의 『주역』 해석 방법론 비교	공자학 36	한국공자학회
2	유정연	정제두(鄭齊斗)와 중강등수(中江藤樹)의 『대학』 해석 비교	양명학 50	한국양명학회

3. 주제별 분류

이 보고서의 다른 분과에서는 주제별 분류의 기준으로 주로 경학 사상, 철학 사상, 교육 사상, 정치 및 경제 사상 등을 삼고 있다. 이 분과에서는 경학 사상이라는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제별 분류 기준을 연구 대상 경전으로 삼고자 한다. 총 35편의 경학 논문 중에서 33편이 경전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연구 대상 경전별로 살펴보면 『대학』 관련 논문이 7편으로 가장 많고, 『역경』 6편, 『논어』 4편, 『중용』 4편, 『서경』 4편, 『맹자』 3편, 『춘추』 2편, 『시경』 1편이 있다. 또한 사서(四書)를 함께 다룬 논문이 2편 있다.

1) 『대학』

『대학』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원석	이언적(李彦迪)의 『대학』 이해(-『대학』 편장 개정과 격물치지 개념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83	대동철학회
2	최석기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의 『대학』 해석 연구	남명학연구 57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3	한정길	지천(遲川) 최명길(崔鳴吉)의 『대학』관(-주희(朱熹)의 『대학』 해석에 대한 반성의 한 양상-)	대동철학 83	대동철학회
4	한재훈	『대학사변록(大學思辨錄)』에 나타난 박세당(朴世堂)의 격물치지 해석과 주희(朱熹) 비판의 성격	철학탐구 51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5	강보승	하곡(霞谷) 정제두(鄭齊斗)의 『대학』 해석과 격물치지론	양명학 51	한국양명학회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6	길태은	간재(艮齋)의 경학사상 연구(－「대학기의(大學記疑)」의 주석(註釋) 체제(體制)를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56	대동한문학회

『대학』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 유학자와 일본 유학자를 비교하여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유정연	정제두(鄭齊斗)와 중강등수(中江藤樹)의 『대학』 해석 비교	양명학 50	한국양명학회

2) 『역경』

『역경』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수경	이황(李滉) 『주역석의(周易釋義)』의 번역학적 고찰 시론(－조선시대 유가경전주석 번역해석학의 연구방법론 모델 탐색을 겸하여－)	태동고전연구 40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	김병애	하빈(河濱) 신후담(愼後聃)의 『주역』 해석(－『주역상사신편(周易象辭新編)』의 효변(爻變)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73	한국유교학회
3	서근식	북학파의 『주역』 해석 방법론 연구(Ⅰ)(－초정(楚亭) 박제가(朴齊家)와 근기남인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율곡학연구 36	(사)율곡연구원
	천병돈 노병렬	신작(申綽) 『역차고(易次故)』의 공부론 연구(－『역전(易傳)』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양명학 51	한국양명학회
	엄연석	정약용(丁若鏞)의 소옹(邵雍)과 주희(朱熹) 『주역』 수리설 비판에 대한 재조명(－『역학서언(易學緖言)』의 「주자본의발미(朱子本義發微)」와 「소자선천론(邵子先天論)」을 중심으로－)	다산학 33	재단법인다산학술문화재단

『역경』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 유학자와 중국 유학자를 비교하여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임재규	정약용(丁若鏞)과 주진(朱震)의 『주역』 해석 방법론 비교	공자학 36	한국공자학회

3) 『논어』

『논어』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조정은	포저(浦渚) 조익(趙翼)의 경학사상에 나타난 수양관(-『논어천설(論語淺說)』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40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	김희영	박세당(朴世堂)의 『논어사변록(論語思辨錄)』을 통해 본 독자적 경전 주해(-『논어집주(論語集註)』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43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3	이영호	경학사적 관점에서 살펴본 조선경학에서의 '고(古)'의 지향(-조선 논어학의 중요개념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55	대동한문학회

『논어』 해석과 관련하여 일본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임옥균	야마가 소코[산록소행(山鹿素行)]의 『논어』 해석 (1) (-주자(朱子)의 해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93	동양철학연구회

4) 『중용』

『중용』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엄연석	이언적(李彦迪)의 『중용구경연의(中庸九經衍義)』와 『중용구경연의별집(中庸九經衍義別集)』의 경학사상사적 특색	대동철학 83	대동철학회
2	황병기	경학사적 관점에서 본 포저(浦渚) 조익(趙翼)의 중용관	대동철학 83	대동철학회
3	임재규	16-17세기 조선 경학에 있어서 주자(朱子) 중화설(中和說)의 수용과 비판(-조익(趙翼)과 박세당(朴世堂)의 중화설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83	대동철학회
	최석기	조선시대 『중용』 해석의 양상과 특징(-도설(圖說)을 중심으로-)	남명학연구 60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5) 『서경』

『서경』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은호	퇴계(退溪) 직전(直傳) 제자의 『상서』 읽기	태동고전연구 40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	강민구	지봉(芝峯) 이수광(李睟光)의 상서학(尙書學)에 대한 연구	동방한문학 75	동방한문학회
3	이영호	『서경』「홍범(洪範)」 해석의 두 시각, 점복(占卜)과 경세(經世)(-이휘일(李徽逸)·이현일(李玄逸)의 「홍범연의(洪範衍義)」 분석을 중심으로-)	퇴계학보 143	퇴계학연구원

『서경』 해석과 관련하여 중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동욱	양간(楊簡) 『서경』 주석의 특징 연구(-「가기이(家記二) : 논서(論書)」를 중심으로-)	유학연구 44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6) 『맹자』

『맹자』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함영대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의 학술정신과 『맹자사변록(孟子思辨錄)』	한국한문학연구 72	한국한문학회
2	유민정	위백규(魏伯珪)의 수사학적 경전해석(-『맹자차의(孟子箚義)』를 중심으로-)	퇴계학보 143	퇴계학연구원

『맹자』 해석과 관련하여 일본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임옥균	야마가 소코[산록소행(山鹿素行)]의 『맹자』 해석 (1) (-주자(朱子)의 해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96	동양철학연구회

7) 『춘추』

『춘추』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동민	서파(西陂) 유희(柳僖)의 『춘추』 사전(四傳)에 대한 비판적 관점(-『춘추사전산오설(春秋四傳刪誤說)』을 중심으로-)	동양철학연구 94	동양철학연구회
2	김동민	이진상(李震相) 『춘추집전(春秋集傳)』의 성리학적 『춘추』 이해	대동문화연구 10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8) 『시경』

『시경』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학 사상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정일남 이향	양촌(陽村) 권근(權近)의 문학과 『시경』	동방한문학 74	동방한문학회

9) 기타

중국 경학과 관련하여 사서(四書)를 함께 다룬 논문이 2편 있다.

번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임홍태	왕수인(王守仁)과 손응오(孫應鼇)의 사서관(四書觀) 비교 연구(-『전습록(傳習錄)』과 『사서근어(四書近語)』를 중심으로-)	양명학 49	한국양명학회
2	진성수	왕부지(王夫之) 사서학(四書學)의 특징과 청대 실학으로의 전환	동서철학연구 90	한국동서철학회

4.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1) 『대학』 관련

『대학』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많이 연구가 되지 않은 지천(遲川) 최명길(崔鳴吉)의 『대학』 이해를 다룬 「지천 최명길의 『대학』관(-주희의 『대학』 해석에 대한 반성의 한 양상-)」(한정길)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최명길의 『대학』 이해의 특징을 그의 저술인 『대학기의(大學記疑)』와 『대학관견(大學管見)』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대학기의』는 주희의 『대학장구』 체제와 그 의리 해석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고, 『대학관견』은 『대학』에 대한 최명길의 독특한 견해를 밝힌 것으로 파악한다. 최명길의 『대학』 이해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는 『대학』의 체제에 대한 이해이고, 다른 하나

는『대학』의 철학적 의미에 대한 이해이다.

이 논문에서는 최명길은『고본대학(古本大學)』체제를 수용하고, 주희의『대학장구』체제를 낱낱이 비판하면서 그 비판의 이유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최명길이『고본대학』체제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보면 왕수인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왕수인이『고본대학』을 정본(定本)으로 본 반면에, 최명길은『고본대학』에 결함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한다.『대학』의 철학적 의미에 관한 부분은 삼강령(三綱領)에 대한 이해, 지지이후유정(知止而后有定) 장의 안(安)과 려(慮)에 대한 이해, 격물(格物)에 대한 해석, 성의(誠意) 공부 등에 대해, 주희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의 독창적인 주장을 제시하고, 그 근거를 밝히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최명길의『대학』해석의 특징을 통해 최명길은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로『대학』을 연구함으로써 자신 나름대로의 체계적인 이해를 지니고 있었다고 평가한다. 또한 당시 조선의 학술 풍토에서 주자학의 권위에 도전하여 자신의 독창적인 견해를 제시한 점에서, 최명길의『대학』이해는 조선 경학사에서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2)『역경』관련

『역경』과 관련해서는「정약용(丁若鏞)의 소옹(邵雍)과 주희(朱熹)『주역』수리설(數理說) 비판에 대한 재조명(-『역학서언(易學緖言)』의「주자본의발미(朱子本義發微)」와「소자선천론(邵子先天論)」을 중심으로-」(엄연석)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소옹과 주희의『주역』수리설과 정약

용의 『역학서언』에 포함된 평론으로서 「주자본의발미」와 「소자선천론」에 나타난 정약용의 수리설을 비교하여, 이들 사이의 상관적 특성과 차이를 재조명하고 있다. 또한 정약용이 소옹의 선천 수리역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반면, 주희의 수리역학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수용하면서 이론적 한계를 비판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소옹의 수리설을 중심으로 하는 선천역학 사상이 괘효상을 수리의 연산과 결합하여 자연과 사회역사를 설명하는 체계를 지니고 있다고 파악한다. 또한 소옹의 학설에서는 태극을 말하기는 하지만, 주희가 말한 도덕적 근원으로서의 리(理)와 동일한 의미는 아니라고 파악한다. 이에 비하여 주희는 『주역』을 상수역학과 변역(變易)의 관점에서 보았으나, 궁극적 목표에서는 의리역학적 특색을 가지는 만큼, 부분적으로 상수역학 이론을 제시하면서도 기(氣)와 상수에 대한 리(理)의 우선성을 견지한다고 파악한다. 반면에 정약용은 경험주의적 현상론의 관점에서 드러난 괘와 그 배후에 숨어 있는 괘의 역동적 변화 양상에 대한 여러 이론적 설명체계를 통하여 귀납적으로 길흉회인(吉凶悔吝)의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지만, 현상론적 관점에 치우침으로써 때로 14벽괘에 대한 설명과 가일배법(加一倍法)에 대한 설명에서는 정합적이지 않은 이론을 제시하기도 하였다고 평가한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정약용은 소옹의 수학은 주로 비판하였으나, 주희의 변역 이론은 옹호하면서도 역리사법(易理四法)을 중심으로 하는 경험론적 수리역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고, 정약용의 역학을 구성하는 중심개념을 요약한다면 자연의 여러 변화의 수리적 질서와 변화를 뜻하는 '추(推)'에서 찾을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3) 『논어』 관련

『논어』와 관련해서는 「야마가 소코[산록소행(山鹿素行)]의 『논어』 해석(1)(–주자의 해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임옥균)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소코가 『논어』라는 책은 말은 친근하지만 멀리까지 적용된다고 하여 『논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논어』는 『대학』의 효험을 보여주는 책이며, 일상생활에서 격물치지(格物致知)의 실천을 강조하는 책이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즉 소코는 성인의 학문의 큰 강령인 격물치지를 밝혀준 것은 『대학』이고, 『논어』는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파악하여, 『논어』의 많은 장들을 실제로 대상에 나아가 앎을 이루어 실천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아울러 소코는 보통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부귀를 추구하는 것도 매우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부유함과 귀함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고 가난함과 천함은 사람이 싫어하는 것으로, 천하 사람들의 공통된 감정이라고 보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 논문에서는 소코는 효제와 인의 관계에 대해서 성인 문하의 가르침은 일상생활에 있으므로, 효제를 놓아두고 인(仁)을 논하는 것은 일상생활 이외에 인을 구하는 공부를 따로 세우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효제하면 인의(仁義)는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효제가 인의 근본이 된다고 주장한다고 파악한다. 정자나 주자가 인이 본체이고 효제를 그 작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효제가 인의 근본이라고 해석할 수 없었고, 인을 행하는 근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반면에, 소코는 인과 효제의 관계를 본체와 작용의 관계로 본 정자와 주자의 견해를 비판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주자는 경(敬)을 주일무적(主一無適)으로 풀이했는데, 소코는 경을 외면적 일과 분명하게 관련지어 설명함으로써 내면적

인 마음과 관련짓는 것을 애초에 부정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이 논문에서는 소코는 『논어』를 해석하면서 일본이야말로 중화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소코가 일본이 바로 중화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국토는 만방에 우뚝"하고 "인물들이 천하에서 빼어나고 뛰어나다."는 것이고, 둘째는, "성인의 다스림이 이어져서", "문물은 찬란하고 무덕(武德)은 빛났다."는 것이라고 파악한다. 중국과 한국에서의 화(華)와 이(夷)를 가르는 기준이 문화[문덕(文德)]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소코가 이처럼 일본을 중화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의 하나로서 무덕을 제시한 것은 매우 독특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소코의 이러한 생각은 모토오리 노리나가, 미토학으로 계속 이어지며, 막부 말의 조선침략론이나 명치유신기의 정한론(征韓論)에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소코의 『논어』 해석을 통해서 주자학이라는 외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일본이라는 토양에 맞게 토착화하려는 고학파로서의 소코의 모습과 함께, 그것이 보편성을 상실하고 자국중심주의로 흐를 때 갖는 위험한 모습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4) 『중용』 관련

『중용』과 관련해서는 「이언적(李彦迪)의 『중용구경연의(中庸九經衍義)』와 『중용구경연의별집(中庸九經衍義別集)』의 경학사상사적 특색」(엄연석)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언적이 지은 『중용구경연의』와 『중용구경연의별집』이 주희의 성리학적 중용관과 비교하여 어떤 경학사상사적 특색과 함께 그의 경학사상의 전체적 체계 속에서 이들 저술이 가지는 경학적 의미를 탐색하고 있다. 특히 이 논문은 조선 전기 경학

사상이 문화다원론적 관점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하는 점을 『중용구경연의』와 『별집』의 경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언적이 『중용구경연의』에서 『중용』 가운데 주로 구경(九經)에 초점을 맞추어 천하국가를 다스리는 요점으로서 구경을 강조하며 이것을 행하기 위한 덕목을 성(誠)으로 보고 이를 위한 수양의 근거를 『대학』의 격치성정(格致誠正)에서 보완해야 함을 주장한다고 파악한다. 특히 이언적이 『중용구경연의』를 임금에게 올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음으로써 여기에 제왕학으로서의 특성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언적은 임금이 통치를 행하는 제왕학적 관점에서 재상이나 신하를 등용하는 문제를 강조하고, 또한 하늘이 상서(祥瑞)와 재앙을 내리는 것은 임금의 덕이 한결같은지의 여부에 달려 있음을 주장한다고 파악한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 이언적이 천리와 인욕을 대비하여 임금의 덕을 말한 것을 근거로 하여 성리학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지만, 또한 이언적이 제왕이 순일한 마음을 유지할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언적의 『중용』의 구경에 대한 인식이 임금의 수양과 실천을 강조하는 제왕학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5) 『서경』 관련

『서경』과 관련해서는 「퇴계 직전 제자의 『상서』 읽기」(이은호)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퇴계의 직전 제자인 조목(趙穆)과 이덕홍(李德弘)의 상서학의 단면을 파악하고 있다. 조목의 『상서의의(尙書疑義)』는 퇴계의 『서석의(書釋義)』의 형식을 그대로 준용하면서도 『서석의』와 중복되지 않게 내용을 부가하였는데, 특히 『서집전(書集傳)』의 채침주(蔡沈注)에

대한 의문뿐만 아니라, 퇴계의 『서석의』의 내용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 곳은 퇴계학파의 상서설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평가한다. 한편 이덕홍은 「홍범(洪範)」을 중심으로 하는 유가적 질서에 주목하였는데, 우주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나,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덕행의 관계에 대한 고민은 이덕홍의 「홍범월행구도(洪範月行九道)」에 잘 나타나 있고, 경전 상호간의 모순을 고민하는 모습은 실천학문의 전제로서의 경전의 의구심을 먼저 해소하려는 진실한 학문적 태도를 견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조목과 이덕홍은 스승인 퇴계 이황의 상서학을 직접 사승(師承)하면서 사설(師說)의 심화를 도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6) 『맹자』 관련

『맹자』와 관련해서는 「위백규(魏伯珪)의 수사학적 경전해석(–『맹자차의(孟子箚義)』를 중심으로–)」(유민정)이 있다. 이 논문은 위백규의 『맹자차의』에 대한 연구로 그 특징과 경학사적 가치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맹자차의』의 가장 큰 특징으로 경전의 문장에 수사적 비평을 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어휘 배열과 문장 구성, 표현 기초 등에 초점을 두고 경전의 문장을 해석하였다는 의미로, 이 논문에서는 이를 '수사학적 경전해석'으로 명명하고 있다. 위백규의 수사학적 경전 해석은 대부분 객관성과 타당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위백규의 수사학적 경전 해석이 객관적 자료에 의한 고증이 아닌 주관적인 추론이라는 점에서 자의적 요소를 띠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일정한 흐름과 체계를 가지고 조선에서 드물게 '수사학적 경전주석서'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독자성과

의의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춘추』 관련

『춘추』와 관련해서는 「이진상(李震相) 『춘추집전(春秋集傳)』의 성리학적 『춘추』 이해」(김동민)가 있다. 이 논문은 이진상의 『춘추집전』을 주요 텍스트로 삼아서, 이진상의 춘추학이 지닌 학문적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진상의 『춘추집전』은 『춘추』 분야의 성리학적 이론을 종합함으로써 『춘추』를 통해 조선조 성리학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진상은 주자의 시각에서 기존의 대표적인 주해서의 장점을 선별하고, 부족한 부분은 주자의 이론으로 절충했으며, 거기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서 주자가 못 다한 뜻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춘추집전』을 구성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진상은 주자의 이론에 기반한 성리학적 춘추학의 전형을 확립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진상의 그러한 구상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먼저 이진상은 성리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춘추』의 성격을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책이 성리학에 기반한 춘추학임을 분명하게 표명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주자의 이론에 근거하여 『춘추』의 대표적인 주해서인 사전(四傳)의 장점을 취사선택함으로써 『춘추』의 주자적 해석을 지향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이진상이 성리학적 관점과 주자 이론을 근간으로 하는 성리학적 춘추학의 이론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8) 『시경』 관련

『시경』과 관련해서는 「양촌(陽村) 권근(權近)의 문학과 『시경』」(정일남 · 이향)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권근의 『시경』 이해 및 권근의 시(詩)와 『시경』의 관련 양상을 파악하고 있다. 권근의 『시천견록(詩淺見錄)』은 『시경』을 수기치인(修己治人)을 비롯하여 성정지정(性情之正), 감발선심(感發善心)의 시로 인식하였다면, 기타 시문(詩文)에서는 특히 『시경』의 비흥(比興) 예술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사장학에 관심을 가졌던 양촌의 문학관과 맥이 통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양촌의 시는 『시경』의 성리학적 내용에 주목하여 『시경』의 시지(詩旨)나 시어(詩語)를 원용 내지 변용함으로써, 시의 함축성 내지 언어의 세련미에 대한 추구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양촌이 『시경』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정치적으로는 여말선초의 혼란한 시국 및 그에 따른 윤리적인 타락을 치유하고, 문학적으로는 시문의 재도(載道)적 역할을 전제로 하여 그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중시된 사장학 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5. 평가와 전망

앞으로 한국 경학 연구가 지향하고 이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각 경전별로 경학사가 서술되고, 이를 종합하여 구체적인 한국 경학사를 서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연구되지 않은 경학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2018년 경학 연구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경학 측면에서 기존에 많이 연구 되지 않았던 최명길의 『대학』, 위백규의 『맹자』, 신작의 『역경』, 유희의 『춘추』, 이진상의 『춘추』 등에 대한 연구 성과는 이러한 맥락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도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학자들의 경학에 대한 연구 성과가 많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